

# 어려운 이웃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펼쳐

전북대 건축공학과-전주비전대 학생-산학협력단 문화재돌봄사업단, 장수서 집 9채 등 수리

매년 벽지 마을의 독거노인들을 찾아 무료 집 고쳐주기 봉사를 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가 올해도 역시 장수군 지역을 찾아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전북대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를 비롯한 학생 40명과 산학협력단 문화재돌봄사업단, 그리고 전주비전대학 학생 10명 등은 지난 8월 5일부터 9일까지 장수군 일원을 찾아 헌집 고쳐주기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학생들은 장수군 장애인과 노인이 사는 집의 담장을 고쳐주고, 도배 등을 장판 교체 등을 실시했고, 전주 효자동의 사거리 경로당처럼 오래된 공공시설 일부를 고쳐치는 등 총 9채의 집과 2채의 공공시설을 수리했다.

전북대 건축공학과 학생들은 매년 여름방학 때 농촌독거노인 및 다문화가정 헌집고쳐주기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봉사활동 때마다 이미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이 동참해 기술지도를 해주는 등 선후배간의 우정까지 돈독히 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선후배간의 끈끈한 인연은 취업에 까지 연결되고 있어 봉사활동을 통한 다양한 효과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봉사활동에는 전북대 건축공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주비전대 학생들, 그리고 일본 중부대학교 학생 6명, 미얀마 유학생 등이 참가해 그야말로 다국적 봉사단이 구성됐다.

특히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 양국 대학의 젊은이들은 민간외교 차원에서 우정을 돈독히 하면서 봉사로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 전북대 문화재돌봄사업단에서도 최종열·



전북대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를 비롯한 학생 40명과 산학협력단 문화재돌봄사업단, 그리고 전주비전대학 학생 10명 등은 지난 8월 5일부터 9일까지 장수군 일원을 찾아 헌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장민호씨 등이 힘을 보태는 등 학생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실시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 됐다.

2학년부터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민중 학생(건축공학과 5년)은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의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을 직접 접하며 사회에서도 내가 가진 재능으로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특히 졸업 선배도 만나고, 평소 잘 알지 못하던 학과 친구나 후배들과도 정을 쌓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수년째 이 봉사활동을 주관하고 있는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는 "건축가는 건축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매년 학생들과 어려운 이웃을 찾고 있다"며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성기자

## 남원소방서, 폭염대비 구급대 운영 및 점검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절기상 입추가 지났음에도 폭염주의보(경보)가 발효되고 있어, 온열환자 급증 대비 구급대(렘볼런스)의 폭염 대응 출동태세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전했다.



점검 대상으로는 관내 구급대(12개) 및 렘볼런스(11대)로

▲폭염 구급장비 상시 구급차량(렘볼런스)에 비치 여부 ▲구급차 및 렘볼런스 차량 냉방장치 정상 가동상태 확인 ▲아이스 팩 방결 상태 ▲이온음료 저장 상태 ▲정맥 주입용 생리식염수 등 관리 상태 ▲폭염 대응 응급처치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오상준 구조구급팀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바깥활동을 피하고, 만약 바깥 활동을 해야 한다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하는 것이 좋다. 또, 활동 중 현기증·메스꺼움·두통·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보이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 후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경찰, 갑질 근절 위한 전직원 교육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 청문감사관실은 최근 조휴역 청문감사관 주재로 4층 만인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에서는 PPT자료를 활용하여 갑질의 개념 및 유형, 갑질사례, 갑질 신고 요령 등을 교육했다.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법령위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함음제공 등을 강요하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대우나 업무불이, 의사에 반한 모함참여를 강요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휴가철 음주사고 및 신고급증과 개정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음주단속 현장에서 다기능검문과 병행하여 신호봉으로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 "8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다. 때문에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되고,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숙취운전도 적극 단속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경찰, '찾아가는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는 관내 육천요양원 등 노인복지 시설을 방문해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서비스 안내를 실시했다.이날 요양원 등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어르신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근절을 위한 노인학대의 유형, 사례, 신고방법 등을 교육하였고,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치매노인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고 거동 가능한 어르신들의 보호자들에게 위 제도를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무진장소방서, 지나가던 현지 소방공무원 관내 차량화재 초기진압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최근 무주군 적상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에서 지나가던 충청남도 현지 소방공무원이 신속한 초기진압을 해 큰 피해를 막았다는 미담을 전했다.



무진장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9일 12시 31분경 무주군 적상면 마산마을에서 트럭 화물칸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았다.

소방서에서 즉시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해 보니, 차량은 불길이 없었으며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진압이 완료된 상황이었다.

지나가는 행인은 무주군 덕유산으로 피서를 온 휴양객으로서, 현재 충청남도 공주소방서 동화사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위 전병범으로 알려졌다.

소방위 전병범은 차량화재 운전자가 양동이에 물을 받아 소화를 시도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 후, 즉시 본인(소방위 전병범)의 차량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한 진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은 인화성물질, 가연성이 높은 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도로 연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지나가는 길에 초동조치를 해주어 큰 피해를 막은 공주소방서 소속 소방위 전병범씨에게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경찰서, 하계 아영훈련 실시

진안경찰서(서장 이연재)는 12일 진안군 정천면 운장산휴양원에서 112타격대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 아영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대테러·재난 훈련, 기술·자살의심자 수색 등 각종 치안업무에 고생하는 타격대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육행사, 수상안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그간 쌓였던 피로를 풀고 타격대원 상호 유대감과 친밀감을 쌓으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연재 서장은 2019년 상반기 동안 의무위반 없는 부대 만들기에 노력해준 지휘요원·대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영훈련에 참석한 대원들도 "이번 훈련을 계기로 무더위를 날려버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